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사관학교 구실 ‘톡톡’

코로나19 상황 속 공무원·공공기관, 대기업 등 대거 취업 ‘눈길’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취업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취업사관학교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 및 기업에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212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의 경우 지역인재 국가직 13명, 전라남도 지방직 20명,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직 10명, 광주광역시 지방직 1명, 부사관 69명 등 113명이 합격했다. 공기업과 공공

기관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30명이 취업했다.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 8명, 대기업은 삼성전자, GS칼텍스, 포스코건설 등에 61명이 현재까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작지만 강한 중견·중소기업에도

다수가 취업에 성공했다. 향후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이 다수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공무원 등 우수 취업처에 합격을 목표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진학해 꿈을 이룬 학생도 있어,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하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윤규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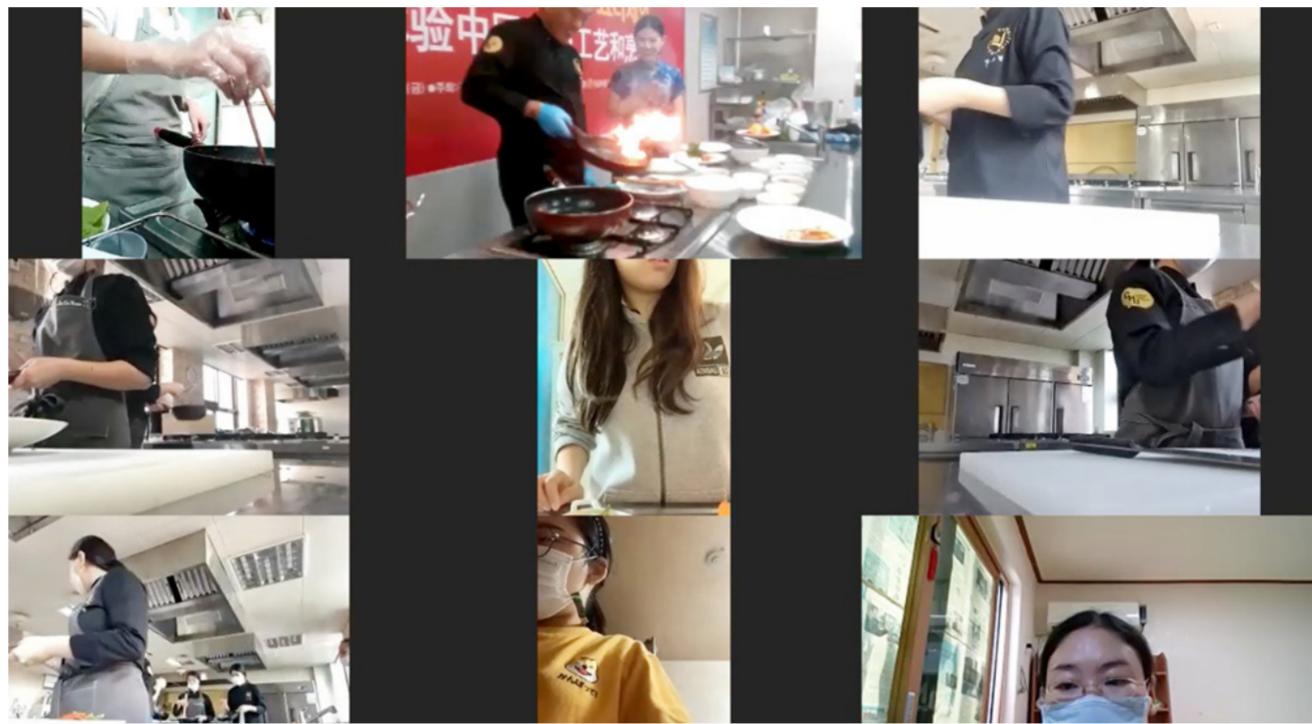
전남교육청, 2021년 시무식 ‘힘찬 출발’ 장석웅 교육감 “10년, 20년 전남미래교육 주춧돌 놓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4일(월)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시무식을 갖고 ‘희망의 2021년’ 새 출발을 다짐했다. (사진)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진과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본청에 전입한 직원 등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청 내 TV를 통해 시무식 상황을 시청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1년은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사람 중심 교육’을 실현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의 원년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장 교육감은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차이나문화센터는 중국 전통 문화 공예체험, 중국 요리 쿠킹 클래스, 한중 나눔 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평소 중국문화를 접하기 힘든 광주 시민과 재광 중국인들에게 힐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했다.

/광주차이나문화센터 제공

광주차이나센터, 차이나문화센터 프로그램 ‘호응’

공예체험, 요리 쿠킹 클래스, 나눔 봉사단 등 힐링 문화체험 기회 제공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센터장 조경완 호남대 교수)가 광주시민들과 재광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이나문화센터는 중국 전통 문

화 공예체험, 중국 요리 쿠킹 클래스, 한중 나눔 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평소 중국문화를 접하기 힘든 광주 시민과 재광 중국인들에게 힐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했다.

특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방구

석 중국 전통 공예·요리키트’를 개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 차이나센터는 향후 다양한 영역의 문화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삶속에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유빈기자

목포대 LINC+사업단, 해남군 자치·혁신 정책 실현 MOU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LINC+사업단(단장 이상찬)은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 북일면 사과꽃도서관건립추진위원장, 삼산면 주민자치

회(준)장, 북일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두륜중학교장,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수석 컨설턴트, 호남대 LINC+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지역의

공동 번영 추구, 학교부지활용,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 주민자치로, 마을 현장중심 사회문제 해결 △ 행정기관의 영역을 뛰어넘은 융복합 협치 사업 진행으로 △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해남군 마을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가영기자

작은 학교 교육력 제고
강진교육상 시상식 개최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재현)에서는 12월 30일(수)에 강진의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쓴 교원 2명, 일반직원 2명을 선정하여 ‘강진교육상’을 시상했다. 강진교육상은 ‘인성·감성·지성이 조화로운 민주시민, 더불어 배우며 성장하는 강진교육’의 비전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적인 사고와 활동으로 존경받는 교직원 4명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올해는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힘쓴 병영초 강동만 선생님, 도암중 박현 선생님, 작천초 임경금 실장님, 신전초 장철식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강동만 교사는 초임부터 현재까지 강진에 재직하면서 강진영재교육원 수학강사, 학생자치연합회 지도교사로 늘 학생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박현 교사는 초빙교사 4년 포함 보직교사로 6년간 도암중학교의 연구학교 운영,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에 공헌했다.

임경금 실장은 작은학교인 작천초의 공간혁신사업으로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장철식 주무관은 신전초의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 및 협조로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에 공헌했다.

윤재현 교육장은 “그동안의 노고에 강진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강진교육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이가영기자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주)하왕

